

#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 활용방안

## Utilization of Water-friendly Space for Rural-urban Exchange and Rural Tourism

이 봉 훈\*  
Lee, Bong Hoon

### 1. 서 론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이 본격 지급되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등 여건이 좋아져 주말에 가까운 농촌을 찾는 관광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형태도 과거 유명 관광지나 명승지 순례 위주에서 가족중심의 체험 체류형 관광으로 변해가는 추세로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농촌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개성 있는 전통문화와 향토음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 특히 농촌에서 자라난 장년층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사 체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을 둘러싼 주변의 여건은 매

우 어렵고,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 한·칠레 FTA 체결 및 중국의 WTO 가입 등의 영향으로 쌀시장 및 각종 농산물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농촌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의 농촌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불가피하게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농이 계속되어 마을의 공동화·노령화가 심화되고 농촌사회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왔다. 농촌인구는 '92년 571만 명에서 2002년에는 359만명으로 '92년 대비 41.5% 감소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령화율도 도시의 5.4%에 비해 농촌은 14.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인구 3,000명 이하인 면(面)도 '90년 152개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약 3배나

\*농림부 농촌진흥과(bhlee00@kr.prio.com)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 상업이나 교육, 문화복지시설, 공공서 등 최소한의 자생기반의 운영이나 유지도 어렵게 만들어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수지와 소하천, 마을내에 흐르는 용배수로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가꾼다면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농촌관광을 홍보하고 주민을 교육하고, 마을안 꽃길조성, 체험관 건립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마을 진입도로를 따라 흐르는 콘크리트 수로보다는 잘 정리되고 예쁘게 단장된 수로에 물이 흐르고, 인근 저수지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주민의 정주공간의 쾌적성은 물론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농촌관광 현황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 농촌관광의 현황 및 수변공간 활용

이러한 농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몇해 전부터 그린투어(green tour), 녹색관광, 농촌관광,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도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가. 국내 농촌관광의 현황

농림부에서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18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76개 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지난 5월 농업기반공사에 설립하여 도·농간 결연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1社1村 결연, 농촌관광 및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도시민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 관리,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교사·학생 농촌체험학습 및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공모전』 개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센터 내 마을 지원팀을 구성하여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 행정자치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아름마을 및 정보화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체험마을, 농협에서 관리하는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중에 있

표 1. 각 부처별 체험마을 현황

구 분	지정 마을명	마을수
계		556
농 립 부	녹색농촌체험마을	76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23
	정보화마을	180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40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45
농 협	팜스테이	152
산 립 청	산촌관광마을	40

으며, 전국적으로는 500여 마을이 현재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와 도농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별 지원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각 부처별로 지정·운영하는 체험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하여 5개 부처는 부처 합동으로 현지마을을 점검 후 공동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처간 유기적인 체계

표 2.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도	'02년 대상마을	'03년 대상마을	'04년 대상마을
계	18개 마을	26개 마을	32개 마을
대전	-	동구 직동 피골마을	-
경기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윗범실마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오감마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평군 청운면 신론1리 이천시 울면 석산2리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승안동마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철새마을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토마토마을 삼척시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 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삽교마을 인제군 북면 용대3리 용대리마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밤두독마을 화천군 하남면 원천2리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매화마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원당마을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 마암터마을 평창군 진부면 탐동리 탐골마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용바위골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두미마을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마을
	보은군 회북면 쌍암3리, 고석리	단양군 기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외암골마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백제인동마을 당진군 면천면 삼웅2리 삼웅마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하리마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마을 보령시 웅천읍 대창4리 벽동마을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안심마을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오복마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남원시 이영면 봉대리 봉대마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진도환경농업마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성암마을 임실군 입실읍 금성리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신마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영보마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시목마을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계량마을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삼수마을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가정마을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중기마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황청리마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진불마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보현마을 문경시 문경읍 지곡리 모싯골마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교촌마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마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관북마을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인동댐마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병천마을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고읍마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평리마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왕지마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월성마을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미천마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훈인지마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하여 기관별 역할,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추진 방향, 대상지역 선정, 사후 관리, 홍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마을 주택 자금 지원 확대, 사무장제도 도입, 보험상품 개발 등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수용여건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체험시설 인증제(등급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 나. 농촌관광의 전망

우리농촌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연경관, 천연의 생태 환경, 전통문화 등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농촌의 무형·유형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한다면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의 [농촌관광요구도 조사]에서도 도시민들은 단순히 명승지관광이나, 유원지 방문 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농산물을 수확하는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농촌관광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농촌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국정홍보처와 농림부에서 공동으로 전문 설문기관에 의뢰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조사자의 10%가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농촌체험관광이 대국민적으로 많이 홍보되지 않았지만, 농촌관광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며 그 성장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촌관광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동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 농촌만이 갖고 있는 포근한 정(情)과 향수를 좋아하지만 편의시설 등의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농촌관광이 정착되어 왔다. 유럽의 경우에는 개인 농가위주의 농촌체험관광이 발전된 형태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관(官)주도로 발전된 형태로서 농촌관광 등 서비스 농업시장은 농산물만 생산하던 농업시장에 견줄 만한 시장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농촌관광 시장규모는 농림부문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1년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농림부문 GDP의 8.9%(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서 프랑스와 견주어 볼 때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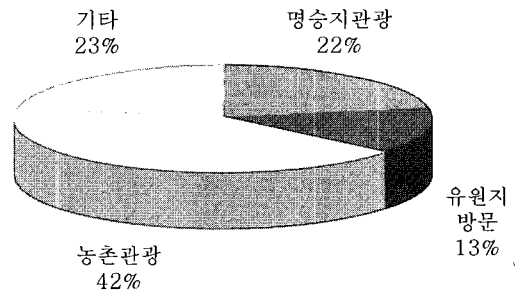


그림 1. 농촌관광요구도 조사

농촌관광은 농촌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을 체험해 보지 못한 도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촌의 전통문화와 시골의 소박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와 영농체험을 통해 농촌·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도·농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표 1. 프랑스의 GDP 대비 농촌관광 점유율

구분	농림부문/ 전체 GDP	농촌관광/ 전체 GDP	농촌관광/ 농림부문 GDP	비고
프랑스	2.0%	1.4%	70%	

### 다.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저수지 및 소하천 현황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휴양자원으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부 3,312 개소로서 그 중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1차 개발 대상 저수지는 82개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에 관광도로, 주차장, 산책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저수지 주변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한계농지개발 대상에서도 배제되므로 농지조성비 감면혜택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촌마을 주변의 소하천이나 농업용 수로는 대부분 정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대부분이 콘크리트 수로로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농촌관광과 연계되어 상품화 될 필요가 있다.

### 3. 수변공간을 이용한 국내외 개발 사례

#### 가. 칠곡군 왜관읍 매원지 수상골프연습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매원저수지는 수면 35천평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9홀의 미니골프장과 음식점, 카페,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비는 총 30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일일 이용객은 80~100명, 월수입은 약 1억원 정도로 월평균 25~30백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수상 골프연습장은 32라인 규모로 골프공이 물에 뜨도록 고안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는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수지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수지 하류측에서 양수·저류하여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2. 수상 골프 연습장

#### 나. 일본 사야카이정 저수지변 통나무집(숙박시설)

일본 사야카이정, 저수지 주변에 통나무집(cottage)은 원지형을 살려 저수지 수면에 가깝게 축조하기 위하여 저수지 경사부에 목재기둥을 세우고 건축하였다. 코티지(6동)는 목조건축물로 건평 12평에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실 및 취사시설, 욕실 및 화장실, 침실(2층 침대 2개) 등을 갖추고 있다.

#### 다. 일본 군마현 니하루무라(新治村) 친환경 수로정비

일본 군마현의 마을에서는 마을내로 흐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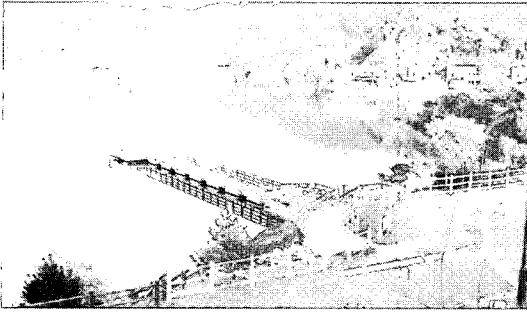


그림 3. 이자노우에 공원



그림 4. 코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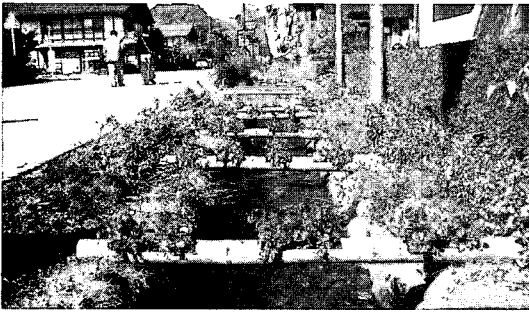


그림 5. 마을내 수로전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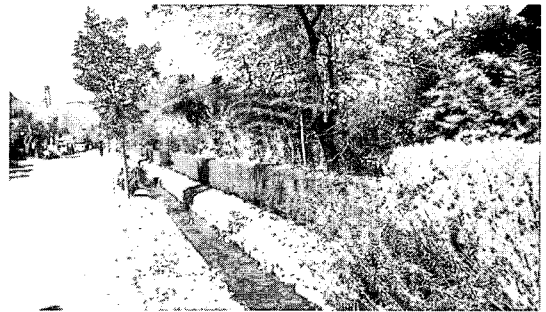


그림 6. 마을내 수로전경 2

수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마을의 쾌적성을 높이고, 마을 방문객에게 청정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 4.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수변공간 활용방안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마을과 가깝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저수지나 담수호에 대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수지 주변도로, 휴식시설 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상레저, 수상골프연습장, 낚시터 등의 사업은 임대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저수지 주변토지를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용도폐지가 가능한 저수지 주변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개발은 자연훼손과 파괴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수변공간조성사업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지구는 본사업계획에 수변공간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단계적으로 참여하여 1단계로 수변도로, 주차장 등 기반·공공시설을 국고지원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 관광농원, 휴양시설 등의 수익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충북 보은군 비룡지구와 전남 구례군 광의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지고 있다.

넷째,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 주변의 소하천이나 농업용 수로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소하천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양안을 정비하고 친수식물과 화초 식재를 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을 통과 구간은 자연하천수를 유입시켜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여 보는 이에게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변공간 주변에 나무 그늘을 조성하고 재래식 우물, 나무벤치, 팔각정 등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 론

우리의 농촌은 많은 도시민들에게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삶을 재충전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먹거리와 전통문화, 농사체험을 통한 땀의 소중함을 느끼는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과 연계한 도농교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사례가 많지 않다. 마을내 농업용 용배수로나 소하천,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마을의 농촌관광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하고 마을의 소하천이나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민의 여가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수변공간조성사업을 개발사업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정보의 습득,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